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1076@kiwoom.com



미 증시, 달러 강세 부담에도 ISM 지표 호조, 금리 하락 등으로 차별화 장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일(월) 미국 증시는 달러 강세 부담에도, ISM 제조업 PMI 호조 속 12월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 등에 따른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여건에 힘입어 빅테크 중심의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(다우 -0.3%, S&P500 +0.2%, 나스닥 +1.0%).

글로벌 강달러 현상 재개가 신경쓰이고 있기는 하나, 달러 인덱스의 상단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나 금리의 추가 상승도 억제되고 있다는 점이 안도 요인. 또 매파 인사인 월러 연준 이사가 현재로서는 12월 인하를 지지하며, 예상외로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시 동결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마찬가지.

이런 측면에서 11월 ISM 제조업 PMI의 세부 내용들도 증시 친화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판단. 일단 전체 수치가 48.4pt로 전월(46.5pt) 및 컨센(47.6pt)을 모두 상회했다는 점은 "미국 경기 호조 ->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"이라는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. 하지만 대선 전까지 미뤄두었던 기업들이 신규주문(47.1 -> 50.4) 등이 대선 종료 이후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점은 기업 실적 전망에 있어서 중립 이상의 영향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자, "Good is Bad"의 충격을 중화시켜주는 요인.

더 나아가,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미국 CPI에 선행하는 ISM 제조업 물가지수(54.8 -> 50.3)가 전달에 비해 둔화했으며 컨센(56.0)도 큰 폭 하회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. 추후 여타 매크로 지표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12월 인하 전망에 수시로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, 현 시점에서는 "12월 인하 + 시장 금리와 달러의 추가 상승 제한"이라는 전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가는 것이 적절.

한편, 미국 증시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국내 증시는 좀처럼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도전과제가 되어버린 상황. 한은의 2 연속 금리인하에 대한 성격 논란, 마이너스 대에 압박한 수출 증가율, 트럼프 정부 불확실성 등 펀더멘털 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저가 매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이는 수급 자체를 얇게 만들고 있는데, 2일 코스피 거래대금은 7.6조원대로 일평균거래대금 10.9조원을 큰 폭 하회했고 코스닥도 6.3조원대로 일평균 거래대금 8.5조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종간 순환매가 일어날 때에도 기존 수급의 이탈이 발생한 업종들의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등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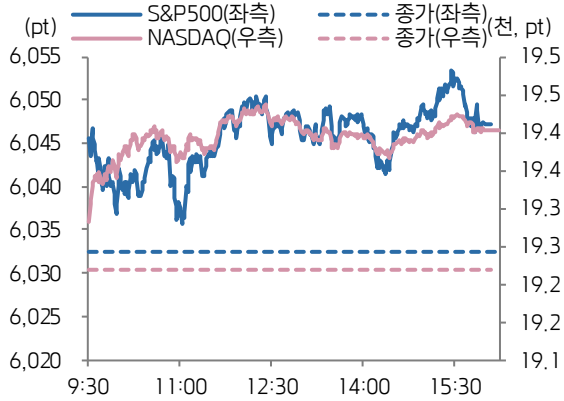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이전에 강조했듯이, 후행 PBR 밸류에이션 0.87배 이하 레벨에서는 매도에 따른 실익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(2일 기준, 0.86배). 해당 레벨은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악재들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며,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당사의 기존 관점을 유지. 이런 측면에서 국내 수출 대형주들의 이익 전망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ISM 제조업 신규주문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반길만한 호재성 재료가 될 것.

과거 대비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, 절대적인 의존도 자체는 높은 중국의 경기 회복도 주목해볼 필요(11월 수출 데이터 기준,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.0%, 비중 고점은 20년 5월 30.8%). 최근 발표된 11월 중국의 민영 및 관영 제조업 PMI가 호조세를 기록한 것 이외에도,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9월 말 -41.0pt를 바닥으로 상승 반전하며 현재 +20.5pt 수준까지 반등한 상태. 이 같은 중국발 재료도 촉매를 확보하려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 부분적인 반등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.

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, 소비재주 강세,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에도, 달러/원 환율 상승, 11월 수출 부진 등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 국면을 지속하며 끝내 하락 마감(코스피 -0.1%, 코스닥 -0.4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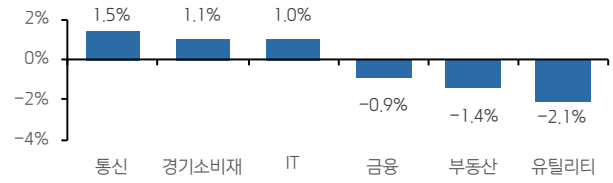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/원 환율 상승에도, 미국 11월 ISM 제조업 신규주문 서프라이즈,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(+2.6%),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. 또 국내 수급이 얇기는 하지만,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하락하는 등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주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줄 전망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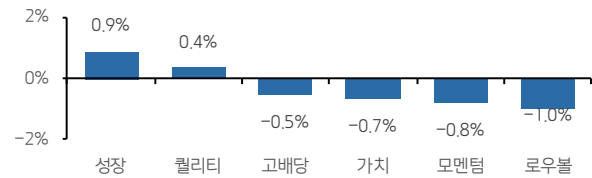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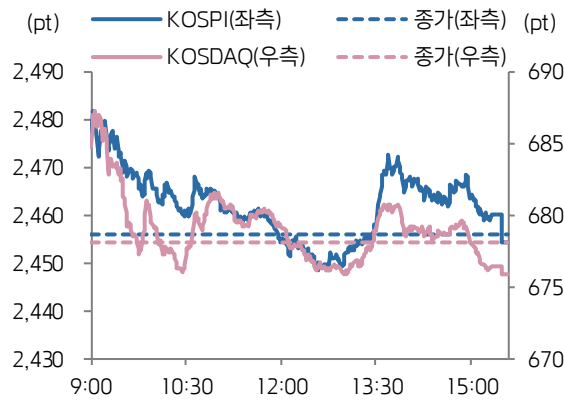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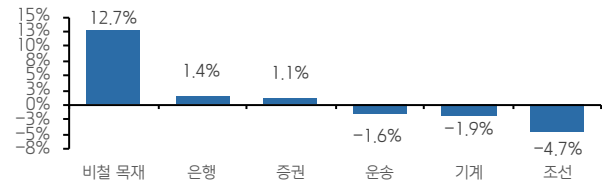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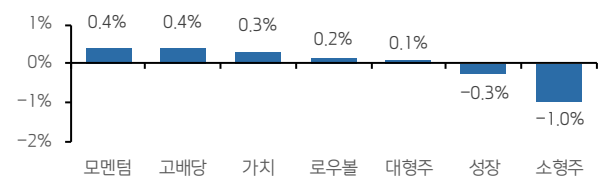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39.59	+0.95%	+25.05%	GM	55.04	-0.99%	+54.47%
마이크로소프트	430.98	+1.78%	+15.47%	일라이릴리	799.80	+0.56%	+38.1%
알파벳	171.49	+1.5%	+23.07%	월마트	92.64	+0.15%	+78%
메타	592.83	+3.22%	+67.99%	JP모건	246.25	-1.39%	+48.22%
아마존	210.71	+1.36%	+38.68%	엑손모빌	117.85	-0.09%	+21.89%
테슬라	357.09	+3.46%	+43.71%	세브론	162.21	+0.17%	+13.43%
엔비디아	138.63	+0.27%	+180%	제너럴일렉트릭	92.64	+0.2%	+78%
브로드컴	166.51	+2.73%	+50.77%	캐터필러	402.51	-0.89%	+38.32%
AMD	142.06	+3.56%	-3.63%	보잉	156.54	+0.71%	-39.94%
마이크론	98.55	+0.61%	+15.82%	넥스트에라	77.07	-2%	+30.6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	
코스피	2,454.48	-0.06%	-7.56%	USD/KRW	1,401.70	+0.37%	+8.83%	
코스피200	325.34	-0.03%	-9.12%	달러 지수	106.40	+0.63%	+5%	
코스닥	675.84	-0.35%	-22.01%	EUR/USD	1.05	-0.75%	-4.9%	
코스닥150	1,138.18	+0.38%	-18.32%	USD/CNH	7.29	+0.51%	+2.25%	
S&P500	6,047.15	+0.24%	+26.78%	USD/JPY	149.60	-0.11%	+6.07%	
NASDAQ	19,403.95	+0.97%	+29.26%	채권시장		가격	DTD(bp)	YTD(bp)
다우	44,782.00	-0.29%	+18.82%	국고채 3년	2.565	-4.6bp	-58bp	
VIX	13.34	-1.26%	+7.15%	국고채 10년	2.700	-6bp	-47.5bp	
러셀2000	2,434.14	-0.02%	+20.08%	미국 국채 2년	4.180	+2.9bp	-7bp	
필라. 반도체	5,055.32	+2.61%	+21.07%	미국 국채 10년	4.190	+2.1bp	+31.1bp	
다우 운송	17,544.90	-0.42%	+10.35%	미국 국채 30년	4.362	+0.2bp	+33.4bp	
상해종합	3,363.98	+1.13%	+13.08%	독일 국채 10년	2.034	-5.4bp	+1bp	
항셱 H	7,009.05	+0.9%	+21.51%	원자재 시장	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80,248.08	+0.56%	+11.08%	WTI	68.10	+0.15%	-2.63%	
유럽, ETFs	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71.83	-1.52%	-6.76%
Eurostoxx50	4,846.73	+0.88%	+7.19%	금	2,658.50	-0.84%	+22.21%	
MSCI 전세계 지수	862.49	+0.49%	+18.64%	은	30.45	-0.77%	+26.42%	
MSCI DM 지수	3,810.14	+0.55%	+20.22%	구리	407.55	-0.12%	+4.76%	
MSCI EM 지수	1,078.57	-0.1%	+5.36%	BDI	1,354.00	-4.58%	-35.34%	
MSCI 한국 ETF	56.71	-1.25%	-13.46%	옥수수	432.50	-0.12%	-15.9%	
디지털화폐		가격	DTD(%)	YTD(%)	밀	547.25	-0.14%	-19.43%
비트코인	95,419.96	-2.46%	+124.48%	대두	985.25	-0.43%	-21.35%	
이더리움	3,616.98	-2.47%	+58.48%	커피	296.05	-6.92%	+55.82%	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2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